



## 공지영의 여덟번째 신작 장편소설 즐거운 나의 집



신작 장편 「즐거운 나의 집」은 세상의 모든 엄마와 딸, 아들, 그리고 아빠가 만나고 헤어지기도 하며 모든 가족이 겪는 행복과 불행, 웃음과 눈물, 생과 사가 담겨 있다. 읽는 내내 '우리 집도 이런데……' 하고 중얼거리며 미소 짓게 하는 이 소설은, 불안전해 보이는 가족 때문에 마음의 지독한 몸살을 앓으며 사춘기를 넘어야 했던 위녕의 목소리로 시작된다. 십대의 마지막을 엄마와 함께 보내면서, 그토록 간절했던 진정한 이해와 사랑을 통해 자신의 소중함을 되찾아가면서 삶의 주체로 당당하게 성장하는 위녕의 이야기는 상처와 고통의 치유가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읽어가노라면 가족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새겨진 상처를 치유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작가가 선물한 금빛 열쇠를 하나씩 손에 쥐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만의 세상을 열어갈 큰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될 것이다. 자칫 심각해지기 쉬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주인공 공 위녕을 통해 십대 소녀 특유의, 당돌하면서도 유쾌한 필체로 그려낸 공지영의 이 작품은 우리 가슴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파문을 일으킬 것이다.

“울리는 건 자신 있는데”라고 작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과거 공지영 소설은 손수건 없이 읽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신작 《즐거운 나의 집》은 상처로 인한 슬픔에 그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고난이 올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용기이기도 하고 인내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건 유머”(본문 101쪽)라고 한 대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작품 속의 웃음은 작가 스스로가 터득한 삶의 지혜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심각하고 슬픔에 가득 차야만 할 것 같은 가족의 이야기가 마치 시트콤처럼 전개되고 있다.

## 윤수영 재경부 특구단장이 쉽게 풀어서 경제학서 세속경제학



『세속 경제학(윤수영 지음, 삼양미디어 펴냄)』은 흥미로운 세계경제 역사와 사례를 통해 건조한 경제학을 현대적 시각으로 설명한 책으로 복리이자율이 부리는 마술을 시작으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하는 경제현상, 일자리와 임금, 세계의 화폐가 된 달러, 골드러시, 주가의 움직임, 제3·4의 물결 등 글로벌 경제의 면면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특히 230년전 아담 스미스가 제시하였던 ‘보이지 않는 손’을 저자 나름의 독창적 발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경제학 책은 오래 지긋지긋한 미적분과 같은 수학공식이 난무하고 그래프와 도표, 수치 등이 가득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요즘 경제현상을 알기 쉽게 설명하려는 경제 교양서가 잇따라 출간되고 있는데, 특히, 고위 경제관료인 지은이가 현 정부의 분배 우선 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이 책의 읽을거리다.

경제위기 불안감은 낮은 성장률 때문이라거나, 실업과 복지 문제의 해결책도 성장에 있다고 강조한다. 기업가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은이 윤수영은 경기고와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미국 콜롬비아대학교에서 통상법 연수를 했고, 벤더빌트대학교에서는 경제학석사를 받았다. 행정고시를 거쳐 경제기획원을 시작으로 주로 상공부에서 근무했으며,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에서 상무참사관을 지냈다. 현재 과천의 재정경제부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 전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초빙교수로 경제학을 강의하면서 이 책을 집필하였다.